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양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외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장삼 편집인: 권홍용 편집: 양재웅

No Cross, No Power 2011년 교회일꾼 임명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후 3:6). 2011년 교회일꾼 인사안이 지난 11월 17일 정기당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가족등록실·양육부가 통합되어 ‘새가족위원회’가 되는 등의 변화가 있는 2011년 교회일꾼 인사의 특징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눅 19:10)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전 2:2)입니다. 이번에 세움 받은 모든 교회일꾼이 십자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새 언약의 일꾼(고후 3:6)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11년 교회일꾼 명단은 본지 7면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주일
(2·3부 가족연합예배)
특별찬양(찬양예배)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기준은 우리의 삶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고후 9:15).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기쁨을 누리시고, 찬양예배 시에는 아멘 찬양대(오케스트라)와 핸드벨 연주대가 준비한 특별찬양이 있으니 참석하여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창세기 1~11장까지는 성경 전체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 주고, 창세기 12장 이후는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보여 주고 있다. 홍수 심판조차도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을 뿌리째 뽑아 낼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부패와 타락 상황은 마침내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절정을 이룬다(창 11:3~4-9). 온 지구상에 흩어진 인간은 분리되어 버렸고 깊은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주 아래 놓인 것이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안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던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이었던다(창 12:1-3).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바벨탑 사건 이후 수많은 많은 나라와는 현저하게 다른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출 3:5~6, 15)으로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들의 구약사역을 진행하셨다(신 7:7-8). 이후 삼한 기근이 온 중동지방을 덮었을 때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었고, 시내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출 19:4-6). 하나님의 은혜와 구약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자신들의 불신앙과 반항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실패를 초래하였다.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 땅을 점령할 전략을 세우며 오랜 시간에 걸쳐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 후에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기를 거친다. 수세기를 걸쳐 사사들의 통치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삼상 8:4-5).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된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볼 때에, 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죄로 인한 그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으로 승화시키신다. 사울에 이어 왕이 된 다윗이 이런 가장 중요한 업적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완전한 통치권을 획득하였다는 것이다.

다윗 시대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로 구분된 것으로(삼하 7:8-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다윗에게서 일단락 성취를 이룬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모두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에 큰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형태를 입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개인적인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의 목적을 다윗의 가정에 주시는 그의 약속에 연결시키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아들과 후손들을 포함시키신다. 온 이방과 특별한 관계다(삼하 7:10, 14, 16).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은 ‘왕’의 차원에서 역사의 패자지 속으로 옮겨 간다. 아멘.

THE WIDOW'S GIFT

⁽¹⁾And He looked up and saw the rich putting their gifts into the treasury.

⁽²⁾And He saw a poor widow putting in two small copper coins. ⁽³⁾And He said,

"Truly I say to you, this poor widow put in more than all of them;

⁽⁴⁾for they all out of their surplus put into the offering;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that she had to live on." (Luke 21:1-4)

Jesus not only saw, but specifically mentioned the widow in today's Bible passage. The Bible doesn't give us much information about the widow. We don't know how she became a widow, her age, name, what she looks like, why she was poor, how many children she had, or why her husband died. All we know is that she is a widow who lived in Jerusalem and was very poor. She only had two small copper coins that were worth very little value. The two copper coins were all she had to live on, and she put them in the temple treasury as her gift. Jesus commended this widow for her gift. He did not mention the value of the coins, but he did mention the value of her faith. Jesus' commendation caused this widow to be remembered forever. Her act of faith was so important that 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Himself to make a point of it, "And He sat down opposite the treasury, and began observing how the people were putting money into the treasury; and many rich people were putting in large sums. A poor widow came and put in two small copper coins, which amount to a cent. Calling His disciples to Him, He said to them, 'Truly I say to you, this poor widow put in more than all the contributors to the treasury; for they all put in out of their surplus,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she owned, all she had to live on'" (Mk. 12:41-44). All too often Christians lose their perspective of value. When Jesus heard people talking about the beautiful stones and valuable ornaments in the temple, He said, "As for these things which you are looking at, the days will come in which there will not be left one stone upon another which will not be torn down" (Lk. 21:6). Every material thing that is considered valuable on this earth will one day be destroyed, but everything that Jesus mentions will never pass away,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 (Lk. 21:33). What did Jesus mention? He mentioned this poor widow woman! You and I need to live and practice this woman's faith because her faith leads to eternal life.

This widow's faith took her to the place of worship, "And He looked up and saw the rich putting their gifts into the treasury. And He saw a poor widow putting in two small copper coins" (Lk. 21:1-2). This woman came to church, desiring to worship God. Jesus saw the people coming to the temple. Most of them wanted other people to see how much money they were giving, but not this widow. This woman could not show off anything great because she didn't have much, but what she had she gave to the Lord. By giving her heart and all,

she showed her complete dependence on God for all her daily needs. Some people in her situation might find excuses for not coming to church, like not having good clothes, ashamed of their appearance, or just too tired from working hard. This widow woman's faith was real. Her shortage of funds didn't keep her from the temple. Indeed, she was poor in money, but she was overly rich in faith!

This widow's faith moved her to give. Jesus said, "Truly I say to you, this poor widow put in more than all of them" (Lk. 21:3). Most people would have thought they couldn't afford to give because every penny they had they needed for their own living. Their mindset might be fixed on thinking that the rich people's offering was more than sufficient. This widow didn't think that way; she considered giving an act of worship. Christian giving has great spiritual significance. This widow couldn't give much financially, but she couldn't keep from giving. Her gift was insignificant to most people, but to Jesus it was very significant. So many people calculate and analyze their giving, but not this woman. Real believers are great givers spiritually! Peter told the lame man, "I do not possess silver and gold, but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Nazarene walk" (Ac. 3:6)! Daniel also wasn't well propertied, but he had the power of prayer. He was a great man of faith. When his enemy placed him in a lion's den, he prayed and God shut the mouths of all the lions (Dan. 6:24-26). The widow's offering was spiritually so valuable that God accepted it gladly.

This widow's faith caused her to give all she had, "for they all out of their surplus put into the offering;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that she had to live on" (Lk. 21:4). Jesus saw and witnessed this wonderful event. Jesus thought her gift was better than all the others put together. He saw the largest gift of the day. God measures our gifts by our ability to give. Others gave part of their wealth, but the widow held nothing back. Imagine the inward struggle she faced. Her gift meant that she would literally have nothing, but still her faith moved her to give it all. Faith giving is revealed by what we keep. God gave us His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receives Him will receive eternal life. Faith gives to God no matter if funds are large or small.

My dear friends, what is your gift to Jesus Christ? Are you still calculating? Where is your faith? I hope your faith is like this widow woman, and that you live this life depending on God and not your own resources. Amen. 🙏

과부의 헌납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리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1~4)



김성완 목사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부의 행위를 보셨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해서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과부가 되었고, 그녀의 나이, 이름, 생김새, 가난한 이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으며, 왜 남편이 죽었는지에 대해 모릅니다. 우리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매우 가난한 과부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녀는 단지 별로 가치없는 두 렵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 렵돈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지만 그녀는 성경 헌금함에 그것을 모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의 가치가 아닌 그녀의 온전한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이 과부를 영원토록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보여 준 믿음의 행동은 아주 중요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막 12:41~44). 너무나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아름다움 등과 한물모 꾸며진 성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눅 21:6). 세상의 모든 것은 곧 멸망할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눅 21:33).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여인의 믿음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경배를 드리는 여인이다

이 과부의 믿음은 예배의 기초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눅 21:1~2).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기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는지 보여 주기를 원했지만 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보여 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기에 주님께 헌금할 돈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진정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모든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옷이 없고, 초라한 모음이 부끄럽고, 너무 힘들게 일해 피곤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과부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성전으로 나오는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그녀는 돈이 없어 가난했지만 믿음으로 부요했습니다.

로 부요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주는 것이었다

이 과부의 믿음은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눅 2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모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들이 내는 헌금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헌금을 예배의 한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금은 영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실질적으로 많은 헌금을 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녀의 헌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었지만 예수님께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드린 헌금을 계산하며 따지지만 이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참 신자들은 영적으로 위대한 기부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얌은뱅이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 다니엘도 가진 것이 전혀 없었지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모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단 6:24~26). 과부의 헌금은 영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모든 것이었다

이 과부의 믿음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리게 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눅 21:4).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보신 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헌금이 다른 사람들이 드린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의 가장 큰 헌금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모습 그 자체로 우리의 헌금을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물질의 일부를 드렸지만 그 과부는 남김없이 다 드렸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내적인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헌금은 자신이 진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녀의 믿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계산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의 죽음

아빠, 아버지

사유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막 14:35~36). '아빠'는 당시 사용되던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마가는 이에 덧붙여 '아빠'와 같은 말인 '아버지'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러한 호칭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으로는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호칭을 사용할 수 있었다. 마태와 누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마 26:39; 눅 22:41~42; 요 12:27~28). 특히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횟수가 170회 정도인데 그 중 요한복음에만 100회 정도 기록되었다.

'아빠'는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가장 친근한 호칭이다. 따라서 '아빠 아버지'라는 이 호칭에는 의식과 형식, 자존심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순수함이 있다. 아버지를 향한 순진무구함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복잡한 형식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아빠'라고 부르기를 주저한다. 이와 같은 겸손한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주셨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

가를 통하여 연결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듯이 우리도 십자가 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니 그 이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많은 성경학자가 갱세마테에서 만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논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는 의식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얽매지 말고, '영자의 영'에 따라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자(롬 8:15).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나니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니 그가 너를 만드시오 너를 세우셨도다'(신 32:6).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는 단순함이 우리의 영혼을 살라게 할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자기 이름을 우리의 구주자라 하셨거늘'(사 63:16).

지금 우리에게 '아빠'를 찾는 어린이들의 순수함이 있는가? 혹시 '왜, 무엇'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분식과 염구'가 아닌 ' 믿음과 순종'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무릎을 꿇자(마 16:24).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6:1-6)



감사의 계절이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화평과 진정한 감사는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평화이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첫 걸음이다. 믿음이니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준다. 이 평화와 지금 온 세상이 구하고 있는 평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온 세계인들이 구하는 평화는 무언가를 얻고,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평화는 자기를 부인할 때 얻는다. '나는 죄인임이다'라는 회개 속에 참 평화가 있다. 우리는 복음의 빛진 자다(롬 1:14).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진리를 잊은 채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을 찾는다(롬 1:21-23).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 장애물이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만을 좇아다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엡 2:3).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었다(엡 2:4-6).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얻는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 영원을 얻는 평화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평화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2).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롬 6:18).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해방된 우리의 상태가 '의의 종'이라는 점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평화라 아닌 방종과 타락일 뿐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평화의 끝은 영생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2-23).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후 5:17-18).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셨다(사 49:3). 이 은총의 때를 놓치지 말자(고후 6:2). 영원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 삶을 이해하는 평화이다

영원의 평화를 얻을 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가? 물질적인 풍요로운 가운데 건강하고, 존경과 명예를 얻는 삶인가?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9). cf. 요 17:14. 요일 3:13.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평화는 육신의 안락을 취함으로 얻는 것과 정반대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얻는 평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임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3-5).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야 한다(마 16:24). 고난과 박해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온 세상은 평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전혀 관계 없는 거짓 평화다. 우리를 평화롭게 해 줄 것 같은 세상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자(요일 2:15).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요일 2:16). 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요일 2:17).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평화에는 영원을 바라봄으로 지금의 삶을 이해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히 12:1).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늘의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감사와 기쁨

사역지까지 8시간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서 팀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갔다. 집집마다 다니며 문을 두드리는데 마치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데 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둘째 날 차로 2시간씩이나 달려갔는데 길이 나오지 않아 멈춘 어느 초원! 광활한 초록색 풀과 파란색 하늘과 흰 구름만 보였다. 유목민들의 집을 방문했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이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도지를 읽어 보라"고 하자 부끄러운 듯 읽었고, 영철기도까지 시키자 "아멘"이라고 따라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 하루 하루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고난을 기뻐하라는 주님의 응답으로 매일 위로를 받았다. 힘을 때나 낙심할 때 감사와 기쁨이란 단어를 늘 머릿속에 새기며 복음을 전했다.

(이성숙(집사, 1교구))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언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308	정운하	초등1부	19	권태선
1309	정윤정	초등1부	19	장 작
1310	최다혜	양육반	10	김근아
1311	조선영	적음반	17	
1312	김혜정	양육반	2	김경숙
1313	박봉진	적음반	19	박봉연
1314	윤민정	양육반	1	김근아
1315	조현자	양육반	18	김애자
1316	김삼영	중등부	20	김예진
1317	오지은	적음반	13	
1318	이태현	고등부	9	홍순길
1319	백소희	적음반	2	우병희
1320	이지원	양육반	5	박희수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23일(화) ~ 12월 1일(수)	12-14교구 연합팀	채홍표
11월 23일(화) ~ 12월 1일(수)	16교구 4팀	문경숙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16일(화) ~ 11월 24일(수)	8교구 9팀	오형석
11월 17일(수) ~ 11월 25일(목)	13교구 3팀	오동혁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12일(금) ~ 11월 20일(토)	6교구 4팀	송영상
11월 15일(월) ~ 11월 20일(토)	청년1부 6팀	장기락

추수감사 4행시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도
고마시는 목사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앞으로도 기쁘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김정연(초등1부)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여!
고를 더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
을 더하자. 주시고, 사용하시고, 회수하시는 자 오직 한 분이
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가자!

감사함에 기뻐하고, 기뻐함에 찬양하며, 찬양함에 예수님께 영광 돌
려드리자! 그리하면

사랑으로 모든 것 용서하신 이가 너와 너의 형제, 자매와 너의 가정
과 너의 직장과 너의 나라 그리고 온 열방을 사랑하실 것이요. 구원
하시리라. 또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되어, 그리스도
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질 그날까지 함께 하자!

정경호(성도, 19교구)

추악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맴은 고통과 죽임 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사셨으니
사랑까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는 당신의 계획
이 먼저입니다

김영구(대학부)

추천합니다!
고없이 많은 감사와 제물들을 여락하신 주님께
감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구속의 은혜를 여락하신 주님께
사모하는 심령으로 진정 감사드리며, 그런 추수감사절을 추
천합니다!

김은규(대학부)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고로웠던 만 애를 생각해 볼 때
감사드려요. 저를 보살피 주셔서요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김영진(중등부)

추수감사절이네요
고마며 달려왔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감사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로 주심에 감사드리며

김예진(중등부)

추수할 일꾼.
고확할 일꾼.
감사함으로 열방으로 나가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요

유경은(청년부)

Thanks, Jesus!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3:16)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으니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성연(유아부)

예수님, 고맙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고, 동생이랑도 같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문인아(유치부)

감사 interview

감사하는 법



왕세은(초등1부)

Q. 후수감사절이 무엇인지 아나요?

A. 감사하는 날이요.

Q. 그럴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가장 감사해요.

Q. 그것이 왜 감사한가요?

A.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으니까요.

Q. 예수님께 감사한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나요?

A. 아니요, 아직 잘 못해요. 교회 선생님이 물어 보실 때만 말하는 것 같아요.

Q. 목사 감사와 관련된 기도제목이 있나요?

A. 네,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감사한 것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명장 감사 (초등2부)

Q. 후수감사절이 무엇인지 아나요?

- 감사드리는 날이요. (장모민)
-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는 날이요. (안주현)
- 예수님한테 감사드리는 날이요. (주나영)

Q. 그렇다면 가장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 저는 항상 감사해요. 주님께서 제가 최인임에도 항상 사랑해 주시니까요. (장모민)
- 교회 다니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나영)
-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주현)
-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박현준)

Q. 나에게 있어서의 후수감사, 혹은 감사를 말 때 떠오르는 표현이 뭐예요?

- 추수감사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주나영)
- 추수감사는 곡식을 추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다. (안주현)
- 추수감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가 되는 날이다. 거두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곡식, 열매니까. (박현준)
- 추수감사는 1년 동안을 다시 되돌아보는 날이다. (장모민)

나 같은 최인 구원 감사 (고등부)

Q. 후수감사절은 무슨 날인가요?

- 감사하는 날이요. (장준영)
- 추수를 하고 나서 수확물을 감사하는 날이요. (박동규)

Q.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있었나요?

- 태어난 것이 가장 감사해요. (장준영)
-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심이 감사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문영진)
- 악기를 알게 해 주시고, 연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박지민)
- 일단,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밖에 학생회를 하면서 주변의 고마운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게 하셨는데 감사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나 같은 최인을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 참 감사해요. (박동규)
-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해요.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해요. (장준영)

Q.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나요?

- 솔직히 감사한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계속 잊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장준영)
- 기도와 말씀읽기를 통해 내 욕심대로가 아닌, 주님이 주신 길로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문영진)
-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박지민)

Copyright © 2010 총회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